

# 홍범도[洪範圖:洪範道]

## 청산리 대첩의 또 다른 영웅, 잊힌 영원한 독립군 장군

1868년(고종 5) ~ 1943년



### 1 봉오동의 홍범도

홍범도(洪範圖)의 출생년도와 출생지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다. 조소앙이 쓴 「홍범도전」에는 평안남도 양덕이라 하고, 평안북도 자성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다. 홍범도 본인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홍범도 일지(洪範圖 日誌)」에 따르면 1868년 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 외성(外城) 서문(西門) 안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어린 시절 홍범도는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다. 15세 때 평양 감영에서 군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에 입대하여 4년간 군 생활을 한 후 제지공장과 금강산 승려생활을 통해 조선사회의 부조리와 민족의식을 몸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청의 산포수와 의병장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여 마침내 홍범도는 봉오동 전투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존재는 전설적인 영웅이나 신화로서 각인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전 한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홍범

도가 연변지역에서 사망하였다는 연구 성과물이 나올 정도로 홍범도에 대한 기본 정보마저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신용하 교수는 1980년대 중반 홍범도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그는 '청산리전투=김좌진'이라는 공식에 대해 홍범도의 '지분'도 역설하였다. 이어 장세윤은 「홍범도 일지」를 통해 기존에 잘못 알려졌던 홍범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역사적 인식을 바로 잡아 그의 항일투쟁사를 복원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홍범도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펼친 항일독립운동의 강렬한 인상은 퇴색되지 않았다. 의병에서 독립군 사령으로, 그리고 빨치산 대장으로 항일독립운동을 끈기 있게 전개했던 그의 시간적 활동과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로 연해주,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감한 중앙아시아라는 공간은 독립운동의 역동성과 함께 러시아 한인이주의 또 다른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 2 의병투쟁, 반제에 눈을 뜨다

홍범도가 의병투쟁을 전개한 배경으로 산포수 활동을 들 수 있다. 홍범도가 정착한 북청군 안산사에는 포연대라는 직업 포수들의 조합이 결성되었으며, 명성도 자못 높았다. 포연대는 이른바 '안산사 포계'라고 불렸다. 그는 탁월한 사격술과 우수한 사냥솜씨를 인정받아 포연대에 가입하였으며, 동료들의 신망을 받아 얼마 후 포연대장에 뽑히기도 했다. 그가 의병을 시작한 시기는 대략 러일전쟁 직후로 생각된다.

홍범도의 의병활동은 그의 사후 15주년 때 구소련 당시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발간하던 한글신문인 『레닌기치』에 「조선의병대장 홍범도」라는 글에서 잘 드러난다. 이 글은 이인섭이 홍범도란 인물에 대해 각별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글이기도 하다.

당시 1905~1907년 러시아혁명은 반일의병 투쟁을 중심으로 한 각종 형태의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을 추동하였다. 반일 의병투쟁은 벌써 전국적 규모에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의병투쟁에 궤기한 인민들은 각지에서 수백 수천여 명에 달하는 무장 대오를 결성하여 일본군·일본 헌병·조선인 헌병 보조원들과 혈전을 전개하여 그들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일제기관들을 습격하였다. 이런 정세 하에서 함경도 삼수갑산 일대에서 활동한 홍범도 의병부대가 특출하였다.

위의 글에서 이인섭은 홍범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으나 한편으로는 당시 그가 처해 있는 위치가 바로 러시아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예컨대 러시아혁명과 의병 항쟁을 연결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홍범도를 의병대장에 국한시킨 것도 그의 독립운동 가운데 의병시절 만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홍범도 의병부대는 후기 의병이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인 대중성뿐만 아니라 1907년 9월에 반포된 '총포화약취체법'으로 생업이 봉쇄당한 현실적 이유도 컸다. 그는 1907년 11월 차도선·태양

육.송상봉.허근 등과 함께 산포수를 규합하는 한편 의병대와 연합전략을 펼치는 등 굳건한 항전 의지를 불태웠다. 홍범도의 진가는 여기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안산사 일대의 포수조직인 포연대의 대장으로 포수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는 을사조약(乙巳條約) 이후 한민족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자행되자 이에 크게 분개했다. 1906년경부터 사냥꾼들이 주축이 된 의병대를 조직하여 반일투쟁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민중에게 반일사상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들을 자기 주위에 끌어들이었다.

홍범도는 차도선(車道善) 부대와 함께 일진회를 비롯한 친일주구 소탕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는 친일주구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일진회(一進會) 회원이자 친일주구였던 안평면장 주도익(朱道翼)과 안산면장 이쾌년(李夫年) 등을 척살함으로써 의병활동의 의지를 굳게 하고 국민들의 결연한 항일의지를 고취시키려 했던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홍범도는 의병부대를 구한국군 편제를 바탕으로 정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엄격한 군율 하에서 일사불란한 규율도 세웠다. 이는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다. 대표적 전투는 후치령전투이다. 1907년 11월 22일부터 4일간 벌어진 후치령전투에서 홍범도부대는 일본군에 많은 타격을 주었다. 일본군의 공식적인 문서에 나오는 전사 3명, 부상 4명이라는 보고는 축소된 것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홍범도부대의 강력한 전투력에 놀란 일본군이 계속해서 병력을 증파하거나 '폭도의 종적은 불명하며 지금까지 1인도 체포할 수 없음은 유감이다'라는 일제의 보고가 이를 반증한다. 홍범도 의병부대가 후치령전투에서 큰 전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포수로서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전술 그리고 치고 빠지는 유격전을 감행한 것 때문이었다. 홍범도부대는 이후에도 십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 일제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홍범도부대의 의병활동이 격렬하게 진행되자 일제는 새로운 대처법을 고안해 냈다. 바로 회유책이었다. 일본군은 1908년 2월부터 대한제국의 관리들인 갑산군수 등을 동원해서 홍범도와 차도선 부대에 대한 치밀한 귀순(歸順)공작을 펼쳤다. 홍범도는 일본군의 회유공작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차도선은 의병들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일본군 요구에 응하고 말았다. 1908년 3월 6일 차도선은 양혁진과 함께 부하 250명을 인솔하여 일본군 수비 분견대가 있는 구 신평리에 주둔한 후 다음날 일본군과 회담을 가졌다. 결국 차도선은 그의 부하 537명의 명단을 제출하고 일본군은 '가면죄증'을 발급하였다. 하지만 '귀순'한 차도선부대에 대해 일본군은 바로 무장해제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태양욱을 총살하였고 차도선마저 구속시켜 버렸다. 이로 인해 홍범도 부대는 인적·물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홍범도의 판단력은 시대상황을 예견하는 등 부하로부터 신망을 얻었을 수 있었다. 일본군의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자 홍범도에 대해 처자를 구류하는 방법으로 그를 유인하려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일본군은 홍범도의 불굴의 의지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홍범도는 자신의 혈육도 희생시킬 정도로 대일 항전 의지가 굳건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

---

정평 바맥이에서 500명 일병과 싸우며 107명 잃고 내 아들 양순(홍양순)이 죽고, 거차 의병은 6명이 죽고 중상되기가 8명이 되었다. 그때 양순(홍양순)은 중대장이었다.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홍양순)이 죽었다. 그날로 떠나서 거사골수로 들

어와서 노희태 군사를 데리고 함흥 명태골로 천보사 절로 넘어가고 나는 군대를 데리고 장진 남사로 내려와서 실령 어구에서 접전하여 16명을 일병을 죽이고 총 16개, 철괘 여섯 개 앓아가지고 도로 천보사 절로 가 노희태 군대에 철 2,400개 분배하여 나눠주고 인차 떠나 18일에 홍원읍 앞에 전진포의 홍가집에 달려들어 홍원군수 홍가 자를 붙들어 일화 37,000원을 빼앗아가지고 그날 밤으로 함흥 덕산관 함영문 그놈의 집에 달려들어 너는 시 좌수로 있고 도 군주사로 있는 놈이니까 돈을 내 청하는 대로 받지 않으면 당장에 식구는 오늘밤으로 멸망시킨다 하고 일화 3십만원을 바치라 한즉 극력 주선하여 3만 원을 내어다 주는 형식을 보니 여러 곳에서 대용하여 주기에 받아가지고 인차 떠나 오면서 글을 써서 사방에 돌려놓으면서 덕산 관사는 한영문이 함흥읍을 들어올 것 같으면 남대천 다리목에 일병 300명 있고 성안에 500명 있으니 염려 말고 들어오라 하기에 수일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하락)

홍범도는 일제 회유책으로 차도선과 연합 의병부대가 타격을 입은 후에도 의병 재편에 정진했다. 1908년 4월부터 5월까지 삼수.갑산.북청 일대의 산포수와 청년들을 권유하여 의병에 가담시켰다. 또한 의병부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무기.식량.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게릴라전의 특성상 기동력은 필수였는데, 이를 유지하려면 군수물자의 조달이 매우 중요했다. 비정규군이 가진 한계로서 군수물자 보급은 의병부대를 유지하는 토대였다. 의병의 전열을 가다듬은 홍범도는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하기 전까지 십여 차례의 전투를 치렀다.

홍범도 의병부대가 최강의 정규군도 아니며, 병력 면에서도 일본군을 압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에서는 최강을 자랑하는 의병부대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산포수대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포수는 잘 갖춘 조직을 통해 사냥을 한다. 홍범도 의병부대가 빠르게 군조직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산포수대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었다. 특히 산을 무대로 활동했던 산포수들이기 때문에 함경도 산악지대의 특성을 숙지하고 있어 일본군보다 지형을 이용한 전투에 능숙했다. 둘째 지역민과의 소통이 가능한 부대였다. 홍범도부대는 민중과 밀착되어 그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는 의병부대였다. 홍범도 의병부대가 일본군을 도처에서 부수고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방 민중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지도자의 자기희생을 통한 전투력의 배가를 들 수 있다. 지도자의 아들이 희생당하였다는 사실에 의기소침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홍범도가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의병들은 정신력을 무장시키고 나아가 전투력을 증강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는 홍범도 의병부대가 지닌 특징이다

### 3 봉오동전투에서 홍범도의 역할

도문톨게이트에서 왕청 방향으로 이정표를 따라 1.3km를 가면 도로 오른쪽에 수남촌(水南村)이라는 팻말이 나온다. 포장길이지만 비포장과 흡사한 길을 따라 곧바로 올라가면 3.2km 지점에

도문시 수도국 봉오저수지 관리사무소의 대문이 굳게 빗장이 걸린 채 있다. 여기를 지나야 비로소 봉오동전투기념비를 볼 수 있다. 검문소에서 천천히 걸으면 수도국에서 지은 건물과 그 앞에 1989년 1월 18일 도문시 인민정부에서 설립한 '봉오동(鳳梧洞)반일전적지' 기념비가 있다.

전적비는 길이 140cm, 너비 96cm, 두께 10cm, 높이 150cm의 화강암을 2층 기단 위에 올려놓았다. 부지 면적은 가로 720cm, 세로 350cm이다. 좌우에 도문시의 문화재임을 알리는 현판을 중문과 한글로 각각 부착해 놓았다.

봉오동 전적비에서 15도 경사면을 약 10분 정도 오르면 봉오골 저수지가 위용을 드러낸다. 바로 여기서부터 봉오동전투는 시작되었다. 1920년 6월 7일 홍범도와 최진동이 지휘한 독립군 연합부대는 봉오골 저수지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유격전으로 일본군 수십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 85호에는 봉오동 전투의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보도하였다.

---

6월 7일 상오 7시에 북간도의 주둔한 우리 군 700명이 북로사령소재지인 왕청현(汪淸縣) 봉오동을 향하여 행군할 새 불의에 동 지점을 향하는 적군 300명을 발견한지라. 동군을 지휘하는 홍범도, 최명록 양 장군은 직접 적을 공격하여 급 사격으로 적의 120여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적의 궤주함에 따라 바로 추격전을 펼쳐 현재 전투중에 있다.

---

봉오동전투는 한국독립운동 진영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었다. 먼저 봉오동전투로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무장투쟁의 시기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둘째 『독립신문』의 흥분된 논조를 보더라도 3.1운동 이후 무장투쟁에 대한 '희망고문'을 말끔히 해소했다는 점이다. 여기의 정점에 홍범도가 있었다.

홍범도는 1908년 국외에서 무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연해주로 망명했다. 연해주는 당시 한국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 러일전쟁으로 분위기가 한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곳이 바로 연해주였다. 이곳에서 홍범도는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는 안중근(安重根).엄인섭.김기룡 등을 비롯한 동의회(同義會) 동지들과 함께 의병부대를 재조직하여 대규모 국내진공작전을 펼치려고 노력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홍범도의 활동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였다. 그만큼 그의 독립운동은 역동성을 지니고 있었다. 연해주지역에도 그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홍범도는 현지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이주한인들과 접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연해주와 만주를 왕래하면서 본격적인 국내진입작전을 계획했던 홍범도는 1919년 8월경 구춘선이 지도하는 대한국민회와 손을 잡는다. 일제가 파악하기에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군 세력들은 훈춘과 러시아 경계를 넘나들면서 군자금 모집 및 독립군 인적 수급에 전력을 다한 듯하다. 국외

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는 취약한 재정 상태를 유지한 채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운동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주요한 장애 요인이었다. 각 단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력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재정확보의 어려움은 당시 설립된 독립운동단체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정규군으로서의 일정한 한계를 띠고 출발한 독립운동단체는 군자금 모집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실에 안주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대부분 독립운동단체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형식의 회비를 일괄적으로 거두었다. 여기에서 일정부분 갈등 요소가 존재하였다. 이것이 군자금과 연계해서 독립운동단체가 극복해야 할 두 번째 과제였다. 즉 이주한인과의 갈등은 군자금 모집의 큰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연동해서 각 단체의 재정 역시 영세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홍범도부대는 달랐다. 대한독립군은 무장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근거지 일대에서 다른 군소단체들의 기부금 징수를 금지하며, 동포사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대한독립군 의용대장 홍범도 명의로 다음과 같은 유고문을 공포하였다.

---

천도가 순환하고 민심이 응합하여, 아 대한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후 위로 임시정부가 있어 군국대사를 주관하며 아래로 민중이 단결하여 만세를 제창할 새 於是乎 우리의空前絶後한 독립군이 동하였도다. 슬프다, 강권 아래서 오직 정의, 인도만 주장함도 불가능한 일이요, 無權之民으로 한갓 평화회의와 연맹회의만 의뢰함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뇨. 그러므로 혹 가산을 방매하며 혹 고금을 얻어 무기를 준비함은 背城一戰에 城下之盟을 언약코저 함이나 오히려 경동하지 못함은 오직 정부로 광명정대한 선전을 기다림이라....(하락)

---

자금 확보와 현지인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택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은 국민회의 지원을 받아 병력은 약 400명, 군총 약 200정과 권총 약 30정을 보유한 독립군으로 확대되었다. 대한독립군은 1920년 초부터 최진동(崔振東)의 도독부(都督府)와 함께 대규모 국내진입작전을 과감하게 전개하였다. 봉오동전투의 전초인 삼둔자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현재 도문시 월청진 간평촌이라 하는 삼둔자의 주민은 대부분 조선족이다. 원래 무인지(無人地)인 이곳에 종성사람 김.박.최씨 일가들이 모여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살았다. 이를 중국인들은 자신들 표현으로 삼둔자(三屯子)라고 불렀다. 1920년 6월 전투 당시 삼둔자는 화룡현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마을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르고 사면은 모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삼둔자에서 두만강을 건너 동북쪽 약 5리 떨어진 지점에 북한 강양동이 있다. 삼둔자전투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개된 강양동 습격전과 삼둔자 서북방의 기습전을 말한다. 6월 4일 새벽 독립군 부대가 강양동을 습격하여 일본군수비대에 타격을 가하자, 바로 월강추격대를 조직한 일본군은

두만강을 건너 삼둔자에 주둔한 독립군과 교전을 벌였다. 독립군 30명과 일본군 수비대 18명과  
의 교전은 봉오동 승전의 전주곡이었다.

삼둔자전투에서 패배한 일제는 조선군 제19사단 야스가와(安川) 소좌를 책임자로 월강추격대를  
편성하여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에게 타격을 가할 것을 계획하였다. 홍범도는 일본군 1개 대대가  
독립군 부대를 추격하여 봉오동에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강구했다. 먼저 봉오  
동 상촌.중촌.하촌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대한북로독군부를 4개 중대로 재편하여 일본군과 결전  
에 대비했다. 이 과정에서 봉오동 일대의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최진동의 역할이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홍범도는 최진동과 연합부대를 조직하고 이를 조율하면서 가장 큰 목적인 일제의 타  
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의병투쟁부터 대한북로독군부 활동시기까지 홍범도가 다른 부대와 연합  
을 통해 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20년 6월 7일 정오경부터 시작되었던 봉오동전투에서 오후 4시 이후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자 홍범도는 철수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불과 4시간 정도의 전투였지만 피  
아간에 많은 사상자를 낸 봉오동전투는 독립군들에게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 불릴 만큼 만주  
지역 독립운동세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봉오동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양측의 사상자를 통해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숫자가 서로 달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한국과 중국 측의 통계치만 보더  
라도 대략 일본군 사상자는 300여 명에 달하였다. 홍범도 일지에 나오는 봉오동전투 관련 내용  
은 사망자가 공식적인 기록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

---

19년 10월 14일부터 20년 3월 초 3일에 무단봉에 나가 사흘 유숙하고 있다가 행군  
하여 봉오골 최진동 진과 연합하여 1920년 시월 초 3일 일병과 접전하여 일병 370  
명 죽고, 저녁 편에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데 운무가 자욱하게 끼어 사람이 보이지  
않게 자욱하게 끼었는데, 일본 후원병 100여 명이 외성으로 그 높은산 뒤로 영상에  
올라서자 봉오골서 씹하던 남은 군사 퇴진하여 오던 길로 못 가고 그 산으로 오르  
다가 신민단 군사 80명이 동쪽산에 올랐다가 일병이 저희 있는 곳으로 당진하니까  
내려다 총질하니 일병은 갈 곳이 없어 마주 총질한즉 올라가는 철에 후병이 몇이  
죽으니까 속사포로 내려다 부치니 신민단 군사 한 개도 없이 죽고, 일병이 수백 명  
죽고 서로 코코 소리 듣고 총소리 끊어졌다. 그때 왔던 일병이 오륙백 명 죽었다.

---

이외에도 「저명한 빨치산 대장 홍범도」에도 일본군 450여 명을 소탕했다고 했다. 일본군의 봉오  
동전투 상보에 의하면, 일본군 피해자 전사 1명, 부상 2명이라고 언급하였다. 독립군 측 피해는  
전사 33명, 부상 다수라고 할 정도로 양측의 피해 숫자는 상이하다.

봉오동전투에서 연합부대를 형성하여 일제에게 큰 피해를 입힌 홍범도는 또 다른 국내진입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다.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예컨대 최진동의 지원이 없었다면 쉽지 않은 전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오동전투의 가장 큰 공헌자는 홍범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연합부대의 구성, 둘째 숙련된 정규군과 비슷한 독립군 보유, 셋째 현지인들과 교감이 그것이다. 특히 홍범도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거두었던 승리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독립군부대와 일반인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것이 바로 봉오동전투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지는 의미이기도 하다.

#### 4 '의병대장 홍범도'

『레닌기치』에 실린 「조선의병대장 홍범도-그의 15주년에 제하여」라는 글에서는 러시아에서 발행한 다른 글들의 논조와 마찬가지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에 대해서는 홍범도의 활동을 소략하게 서술하였으며, 특히 청산리대첩을 실패한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홍범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만큼 그의 생애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홍범도의 무장투쟁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그의 무장투쟁은 의병시절부터 견지해온 항일독립운동의 한 방편이었다. 그가 1904년경부터 1920년 청산리전투까지 무장투쟁의 소신을 지킨 원천은 무엇이였을까. 여기에는 바로 철저한 민족의식이 그의 활동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의병을 조직하고 가장 먼저 처단한 부류가 민족과 국가를 팔았던 매국노였다. 기층민의 생활과 금강산 승려생활은 그에게 조선의 부조리와 민족에 대한 의식을 일깨웠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의병을 조직했던 그의 내면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진회를 비롯한 매국노들의 행위는 그에게 용납되지 않는 반민족적 행위였기에 이들을 처단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은 1910년대를 관통해서 1920년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었다.

홍범도는 의병을 조직할 때나 연해주지역에서 활동할 때,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고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수행할 때에도 다른 독립군 단체와 연합을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력하게 연합을 추진하여 독립군의 군사력을 배가시키는 데 주력했다. 의병조직 당시 차도선과 연합부대를 형성한 점,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원동력도 바로 최진동 부대와의 연합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독립운동사의 대표적 승전 가운데 하나인 청산리전투에서도 홍범도 연합부대와 북로군정서 부대의 연합작전은 일본군을 궤멸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홍범도는 연합부대가 지닌 장점을 최대한 발휘했던 연합전의 '끝판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